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영을



지난 일이지만, 어느 분이 장관 하마평에 거론되는 자신을 향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추리는 새는 남해에서 출발하면 북해까지 날아가는데 오토바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단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원추가 하늘을 날 때 그 아래 솔개가 썩은 쥐를 쥐고 있다가 원추를 향해 깃소리를 내며 노려 보았다' 이 분이 장관이라는 그 자체에 관심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입방아에 찧고 있는 것에 대해, 정자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신한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들 얼굴 모두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다. 시쳇말로 자기 잣대로, 혹은 자기 저울로 남을 달지 말라고 한다. 선하고 착하게 살면 손해 볼 일 많고 다른 이들로부터 당한다. 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의 끝은 있고 악의 끝은 없다'는 어르신을 말씀처럼, 선하게 살면 결국은 끝이 좋게 되어있다. 자식 대에서라도 꼭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던가. 중요한 것은 더불어

어 살아가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다. 내가 순수하고 선하면 타인이 알아본다. 내가 타인을 평가하듯이 말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는 만났다 헤어지고, 사귀게 되어 있다.

편안한 마음, 멋진 마음

'친구를 사귀려면 한 계단 올라가서 골라라'라는 탈무드의 내용처럼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과 만나야한다. 특히 인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은 항상 넉넉하게, 여유롭게, 지혜롭게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원추리는 새와 같은 삶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다. 세상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인데, 도인이나 평범한 범인이냐는 마음가짐의 차이다.

시골에서 밭일을 하며 날마다 호미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호

미질로 인해 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판다면, 내 자식 책도 사고 먹을 것도 먹이니 참으로 즐겁다. 이런 마음은 도인의 생각이다. 그런데 호미질을 하며 고생만 하는 내 팔자가 정말 한심하다. 다른 사람은 호강하며 잘도 살던데 나는 왜 고생을 타고났는지, 호미질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운 사람,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 도인과 범인의 차이다. 직장에서 더 마찬가지다. 상사와 동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승진

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날마다 힘든 생활을 한다. 간 손상은, 술 보다는 오히려 술진에 대한 압박감의 영향이 더 크다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난다.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정화시키도록 노력하면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잘못이 있기에 상사로부터 잔소리를 듣겠지 하며 인정하면 바로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이고 마음의 상처도 덜 생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먼저 내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까지

도 이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이나 굶은일이나 그 모든 것은 내 짓이기에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러는 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속이 상한데 마음까지 아프게 된다. 나 스스로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분이 남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전복되자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분은 피투성이가 된 자기 몸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 '살려 주셔서 감사합시다'고 말이다. 괜히 남의 오토바이를 탔다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일인데... 그런 분이 바로 도인이구나하고 감동을 했다. 그분은 몸에 난 상처만 있을 뿐 마음의 상처는 없었다.

살아있다는 것도 즐겁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즐겁고, 숨 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실천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멋진 마음이 아닐까.

<고려대학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최대건

2년 전, 경기도 수원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당시 필자는 수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했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한 상사(부장검사)의 호출이 있었다. 그 상사는 '내(필자) 사건의 결정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혼을 냈다.

자존심보다 초심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릴 듣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필자는 억울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한 뒤 필자는 "일이 너무 힘들고 부장님도 나를 힘들게 한다. 대기업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며 아내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아내는 "그나마 그 직업을 선택한 게 당신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부장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올랐고, 당신이 대기업에 갔으면 같은 분을 같은 곳에서 수십 년간 모셔야 하지만, 당신은 몇 년이면 근무지를 옮기잖아요. 내 생각엔 당신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존심만 센 것 같아요"라고 위로했다.

아내의 얘기를 듣고난 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불현듯 초심 검사 시절

이 떠올랐다. 내가 그때도 그랬던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생각이 얼마나 좋아했던가. 상사에게 혼이 나도 즐거웠던 시절.

순간 초심 검사 시절 '초심을 잃지 말자'는 내 자신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힘이 들어도 매 순간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는 필자의 심란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

같은 날 들어온 신입사원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누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내가 초심검사가 되었을 때 처음 받았던 업무일지를 꺼내들고 당시 적어두었던 글귀를 찾아보았다. '겸손하자',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자',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자', '사건은 때를 깨 아니고 처리하는 것이다' 등.

이 글귀들은 선배들에게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내가 당시 적어두었던 것들이다. 지금 보니 유지하지만 글귀를 읽다 보니 당시 적었던 상황이 새록새록 머리에 떠오르고, 그때의 순수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다시 새겨진다.

그동안 근무지를 수차례 옮겨다녔다. 근무지를 옮겨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모셨다. 근무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필자는 얼마 안 되는 경력에 자존심만 내세우고 내가 결정할 것이 옳다고만 여겼다.

갑자기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초심검사 때 맺은 마음, 올해 첫날 먹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자존심, 편견, 오기보다는 겸손, 배려, 경청의 자세가 다시 필요할 때인 것 같다.

<광주지검 공안부 검사>

기고



조상태

교육은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재능함양의 과정이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며 주인공은 학생이다. 때문에 학생이 화일과 규제가 아닌 자유로운 공간에서 학문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탐구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과학이 문화와 예술을 만나고 경제는 인문학과 융합되어 새로운 100년을 선도하는 주역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기상, 경제대국 등의 정책기조는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무한경쟁의 불길에 타고 남은 이 미지는 공정사회의 붕괴와 서민의 고갈뿐

한숨소리로 들린다.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카이스트 대학생의 애절한 죽음의 이야기도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우리 대학은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곳이고 아니고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다"라는 미국 하버드대 파우스트 총장의 선언적 발언은 우리나라 교육의 후진성과 독단의 정치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요즈음 정치권의 이슈는 반값 등록금이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표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않고 집권여당은 대학의 구조조정부터 시행하자면서 회피성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회 경제적 강자들의 특권과 이종구조에 의해서 서열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비싼 등록금 장사로 부를 축

적한 사학재단들은 정치권력의 비호속에서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비율이 78%로 국공립대학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다. 재정부담비율도 OECD 국가들은 75%를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교육의 팽창은 불합리한 정치논리에서 양산된 지극히 후진적인 정치사회적 현상이다.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횡포를 몰아내고 복지국가의 표상으로 떠오른 덴마크의 성공사례에서 우리는 '정정이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협동이 진보를 가져온다'는 새로운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2009년 영국의 경제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 지수는 세계 68위에 그쳤다. 사회적 불평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사회적 갈등 지

수는 87%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통계지수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꺾박받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핵심과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국공립대학의 증설과 함께 국립지방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수도권 집중의 패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양질의 직업전문학교로 육성하고 직업선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직업에 대한 긍지와 신념을 가지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선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후세의 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경세의 태도로 삼았으며, 민심의 귀주에 순응하고 대중적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승복함으로써 많은 업적과 교훈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유방백세 항기로운 인생, 자손만대 추앙받는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살 것인가, 유추천년의 부끄러운 조상으로 살 것인가. 위정자 자신의 지성과 양심에 의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반값등록금 실현 되도록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대학생과 야당, 시민단체들이 반값등록금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정부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사실 국민소득 50위 정도인 우리나라가 대학등록금 세계 2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역대 정권들이 고등교육을 외면해 온 탓이며 대학들이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해 온 결과다.

유럽은 국립대학이 90% 이상이며 대학 등록금은 무상 내지 수십만 원에 불과해

누구든 손쉽게 대학에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을 자살이나 휴학, 신용불량자, 알바로 내몰며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가. 또 왜 학부모들이 비싼 대학등록금을 제때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며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얼마나 모순인가.

국가가 대학교육을 방치해온 결과다. 그동안 대학들은 대학자율이란 미명하에 물가 상승률보다 2~3배 비싸게 등록금을 올려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한계점에 도달해 국민정서가

폭발한 것이다. 사학들은 학교 설립만 하고 나머지 운영은 모두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을 수백억씩 축적해 놓고도 계속해서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되어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우양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시설

26% 그친 광주시 MOU 실현율 더 높여야

광주시가 강운대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1개월간 국내외 업체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의 실현율이 25.9%로 나타났다. 투자하기로 약속한 4개 업체 중 실제 투자한 업체는 1개에 그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MOU를 체결한 업체는 국내 80곳, 국외 32곳 등 총 112개 업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투자에 이어졌거나 진행중인 곳은 29곳이다. 금액으로는 2조 원 중 1800억 원이 투자됐거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투자 유치 실현율은 짧은 기간을 감안할 때 시 발표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 있다. 특히 기업 유치 MOU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MOU의 3분의 2 이상이 본격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더욱이 시가 투자 실현율에 포함

한 29곳 가운데 상당수는 언제 본격적으로 체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투자율은 25.9%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MOU가 홍보용 또는 전시행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사정이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MOU는 무산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지금과 같은 실적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말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안겨줄 뿐이다. 이는 지금까지 MOU에서 흔히 나타났던 현상이다.

MOU가 지자체와 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구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MOU 실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으로 MOU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1위 오명, 낮 부끄러운 시민의식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시의 교통질서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본보가 광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교통실태를 취재한 결과, 무단횡단이 횡행하고, 신호 위반이 다반사였으며, 심지어 경찰서 앞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 무질서는 시민의식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빨리빨리'라는 이기심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 동안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산수육교 아래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람들은 모두 9명에 달했다. 육교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인근 시장을 가기 위해 도로를 질주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 도로에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승용차도 다수 있었으며, 불법유턴 차량도 19대나 됐다.

이날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도 정오부터 10분 동안 7명의 보행자가 양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남부경찰서 쪽에서 내려오는 1차선 도로를 좌회전과 우회전하려는 차들로 뒤엉켜 중앙선을 넘기 일쑤였다.

광주시민의 교통질서 수준이 이 정도이고, 그때의 순수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다시 새겨진다.

시민들의 그릇된 교통의식이 바뀌지 않는 광주의 교통안전화는 요원하다. 당국도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등 교통 인프라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되, 질서 위반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언제까지 불명예의 굴레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無等鼓

개미 한 마리의 힘은 미약하고 지능도 보잘 것이 없다. 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다르다. 일개미나 병정개미로 나뉘어 자기 몸보다 몇 배 큰 먹이를 찾아 옮기고 분해하며, 종족을 보존한다.

100년 전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윌러는 이처럼 경이롭기까지 한 개미 공동체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협업을 통해 거대한 거미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개체로는 미미한 개미가 집단을 이루면 높은 능력체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개념화했다. 이른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다.

참여형 사이버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가 대표적 사례다. 누구나

나 지식을 올리고 편집할 수 있다 보니 정보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따로 없이 손쉽게 '공유'한다. 네티즌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으로 오류를 수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초기의 오류는 줄고 소수 전문가 집단이 만드는 브리태니커와 비슷한 반열에 올랐다.

집단지성의 개념을 경영에 응용하는

'슈퍼스타K'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나 인터넷 토론을 통해 확대된 것을 유사 사례로 꼽는 이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이 집권 말기 최대 화두로 떠올랐

다. 10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는 학부모와 시민들이 대거 가세했다. 그만큼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정치권, 대학이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치늬름'이 아닌 집단 고민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다.

/정홍시 정책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